

# 2012학년도 주요 11개 대학 수시전형 ‘인문논술’ 시험문제 분석

## 목차

---

- I. 분석 목적
- II. 분석 대상
- III. 분석 기준과 이유
  - 1. 교과서 연계율 정도
  - 2. 영어지문 포함여부
  - 3. 수험문제 출제여부
  - 4. 출처와 해설 공개여부
  - 5.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의 비율 정도
  - 6. 제시문과 논제의 수, 답안작성시간과 분량
- IV. 분석 결과
- V. 분석 결과 요약 정리표

- 참고자료 1. 제시문 출처 목록  
참고자료 2. 종합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I. 분석 목적

지난 2005년 교육부는 ‘대학별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2005년 대학입시 수시 2학기 모집부터 영어 제시문을 내거나 수학·과학 관련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논술, 정답이 있는 논술은 본고사로 간주하며, 이같은 기준을 어긴 대학은 교육부의 사후 심의를 통해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사실상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서 논술 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에선 ‘본고사 부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논술시험의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정에서는 논술을 정규교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논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시장을 찾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하여 본 ‘2012학년도 주요 11개 대학 수시전형 인문논술 시험문제 분석’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2012학년도 인문논술 시험문제를 분석하여,

첫째, 학교교육과정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선행지식을 요구하는 내용이 논술시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둘째, 학생들 본연의 통합적 논술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닌 영어나 수학과 같은 다른 교과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셋째, 단순한 사고능력이 아닌 종합적인 문제해결사고를 요구하는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논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넷째, 제시문과 논제의 수, 답안작성시간과 분량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다섯째, 학생들에게 출처와 해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논술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주요 11개 대학에서 실시된 총 29개의 인문 논술 시험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각 대학과 시험 목록은 아래와 같다.

학교명	시험명	총 제시문 수	총 논제 수
경희대	인문-예체능	4	3
	사회-오전	6	3
	사회-오후	5	3
	계	15	9
고려대	인문A-오전	5	3
	인문B-오후	6	3
	계	11	6
서강대	인문/영미문화/커뮤니케이션	10	2
	사회과학/경제	10	2
	동아시아문화/EU문화/경영	9	2
	계	29	6
서울대	인문	3	8
서울시립대	인문 A	5	3
	인문 B	5	3
	인문 C	5	3
	인문 D	5	3
	계	20	12
성균관대	인문 1	8	4
	인문 2	8	4
	인문 3	8	4
	계	24	12
연세대	인문	4	2
	사회	4	2
	계	8	4
이화여대	인문 1	8	4
	인문 2	8	4
	계	16	8
중앙대	인문 I	7	3
	인문 II	7	3
	계	14	6
한국외대	영어/동양어	6	3
	서양어/사범	6	3

	중국어/사회과학	6	3
	일본어/상경/글로벌경영	6	3
	계	24	12
한양대	인문-오후1	3	1
	인문-오후2	3	1
	상경-오전	3	2
	계	9	4
계	29개	173개	87개

### III. 분석 기준과 이유

#### 1. 교과서 연계율<sup>1)</sup> 정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입학 논술시험이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인지를 점검하기 위해 주요 11개 대학 수시전형에서 실시된 논술시험과 학교교육과정 간 연계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서 논술시험 제시문의 교과서 반영 비율을 계산하였다.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더라도 교과서의 개념을 활용한 문제이거나 교과서에 수록된 작가의 다른 작품일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나, 여러 주관적인 판단의 오차를 줄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출처가 교과서인 것이 명확한 제시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제시문 출처를 밝히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 반영 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교과서 연계율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교과서 연계율} = (\text{교과서 반영 제시문 수} / \text{총 제시문 수}) \times 100]$$

또한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없고 오히려 대학 수준의 선행학습이 있을 경우 더 유리한 시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 대학의 제시문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상의 지식을 요구하는 제시문이 없는 지도 함께 살펴 지적하였다.

#### 2. 영어지문 포함여부와 3. 수학문제 출제여부

지난 2005년 교육부는 ‘대학별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2005년 대학입시 수시 2학기 모집부터 영어 제시문을 내거나 수학·과학 관련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논술, 정답이 있는 논술은 본고사로 간주하며, 이같은 기준을 어긴 대학은 교육부의 사후 심의를 통해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답형 또는 선다형, 특정 교과목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본고사로 분류된다.

당시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논술이란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필요충분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 아니냐"면서 "네가지 문제 유형은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만큼 논술이 아니라 본고사에 가깝다"고 밝혔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은 논술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변별력 확보가 어렵게 됐다는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사실상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서 대학에 따라 수리형 논술과 영어 제시문을 활용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들이 논술고사에 영어 지문과 정답이 있는 수학·과학 문제를 내는 등 ‘본고사형 논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논술시험에서 영어지문과 수학문제를 포함한다는 것은 학생의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논술시험에서 영어나 수학 등의 다른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논술시험 시행의 목적이 흐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요 11개 대학 수시전형에서 실시된 논술시험에서 영어지문과 수학문제의 포함 여부를 조사하였다.

#### 4.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의 비율 정도

1) ‘교과서 연계율’의 개념과 산출공식은 ‘한국과 프랑스의 대입논술시험 제도 비교연구, 김정빈, 동국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를 참고하였다.

대학입학전형에서의 논술시험 시행의 취지는 학생들의 이해력, 사고력, 창의력 등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즉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논술의 논제가 학생들의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논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대학 논술시험 문제의 모든 하위 구성 요소들을 세분화하였으며, 각 평가요소가 어떤 사고능력을 요구하는 항목인지를 4가지 사고능력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의 틀은 현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글을 이해하는 네가지 수준을 가져온 것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요약하기, 논지찾기, 주제찾기, 분류하기, 원인찾기, 분석하기, 설명하기 등은 ‘사실·추론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대안제시, 해결방향논술, 주장평가, 결과평가, 견해논술, 상호텍스트적 비교분석 등은 ‘비판·창조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2009.12)

① 사실적 독해

- ㉠ 단어, 문장, 문단 등 글을 구성하는 각 단위의 내용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 ㉡ 지식과 경험, 글에 나타난 정보, 맥락 등을 이용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 ㉢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다.
- ㉣ 독서 목적에 따라 글의 특정 부분을 선별하여 정보를 파악한다.
- ㉤ 글의 내용을 자기 말로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분량으로 **요약**한다.

② 추론적 독해

- ㉠ 지식과 경험, 표지, 문맥 등을 이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다.
- ㉡ 필자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추론한다.
- ㉢ 글에 묘사된 내용을 근거로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장면과 분위기를 상상한다.
- ㉣ 글의 내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종합**한다.
- ㉤ 독서의 목적, 독서 과제, 독자의 상황 등과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③ 비판적 독해

- ㉠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 자료의 정확성과 적절성 등을 판단한다.
- ㉡ 글에서 공감하거나 반박할 부분을 찾고, 필자의 생각을 비판한다.
- ㉢ 필자의 가치관이나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한다.
- ㉣ 글의 구성 및 표현의 적절성과 효과를 비판한다.
- ㉤ 글감이나 주제가 유사한 글을 찾아 읽고, **관점이나 구성 등을 비교**한다.

④ 창조적 독해

- ㉠ 글의 화제나 주제, 관점 등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한다.
- ㉡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
- ㉢ 필자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 현재 고1,2학년은 2009개정 교육과정, 고3은 2007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다. 두 교육과정 상에서 아래 내용은 거의 동일하므로 가장 최근인 2009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원문에는 ‘감상적 독해’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만 논술시험의 특성상 불필요한 항목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5. 제시문과 논제의 수, 답안작성시간과 분량

본 연구에서는 주요 11개 대학 수시전형에서 실시된 논술시험에서 제시한 제시문과 논제의 수, 답안작성시간과 분량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제시문과 논제의 수가 많거나 답안작성시간과 분량이 학생들로 하여금 육체적·심리적 무리를 초래하는 수준이 아닌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6. 출처와 해설 공개여부

인문 논술 시험에서 제시문의 출처를 밝히고 해설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사항이 사교육의 도움없이 논술시험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투명하게 출처가 공개되었을 때 학생들은 논술시험의 출제범위를 가늠할 수 있고, 해설을 통해 출제의 기본 방향, 출제 의도, 문항 설명,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을 참고하여 자신이 쓴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하며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의 막연한 불안감은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좋은 아주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출처와 해설을 공개했는지 여부를 [○, △, ×]의 세 단계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 △, ×]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처공개여부	○	제시문의 모든 출처를 완전히 공개했을 경우
	△	제시문의 출처를 공개하였으나 일부에 대해서만 공개했을 경우
	×	전혀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해설공개여부	○	출제의 기본 방향, 출제 의도, 문항 설명,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을 상세히 공개했을 경우
	△	해설을 공개하였으나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
	×	전혀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 IV. 분석 결과

### 1. 교과서 연계율

학교명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계	
	인문	사회 1	사회 2	인문 A	인문 B	인문	사회	동아시아		인문	인문 A	인문 B	인문 C	인문 D	인문 1	인문 2	인문 3	인문	사회	인문 1	인문 2	인문 I	인문 II	영어	서양어	중국어	일본어	인문 1	인문 2		상경
제시문 수	4	6	5	5	6	10	10	9	3	5	5	5	5	8	8	8	4	4	8	8	7	7	6	6	6	6	3	3	3	총 173개	
교과서 반영수	2	0	0	0	0	0	2	1	0	0				0			0	0	0	0	0	0	0	1	0	1	2	0			총 9개 (5.2%)
계	2 (13.3%)			0%		3 (10.3%)			0%	0%				0%			0%		0%		0%		4 (16.7%)				0%			총 9개 (5.2%)	

- 총 173개의 제시문 중에서 출처가 교과서인 **교과서 반영 제시문**은 총 9개로 5.2%에 해당하였으며, 경희대 2개(<흥부전>, 신경림 <가난한 사랑노래>), 서강대 3개(고등학교 <경제>, <사회>, <사회문화>), 한국외대 4개(허균 <유재론>, 채만식 <치숙>, 고등학교 <사회문화>,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였다. 그리고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의 경우 0%였다.
- 논술시험의 출제범위가 범교과적 교과내용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학교교육과정에서는 논술을 정규교육과정 시수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각 대학은 논술시험 제시문과 문제를 출제할 때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려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 특히 연세대의 경우 대학교육과정의 선행지식이 있을 경우 문제풀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문계열 제시문(나)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관한 내용인데 이는 대학에서 행정학 관련 개론에서 기초적으로 배우는 부분이다. 대학수준의 기본적인 선행지식이 있을 경우에는 쉬운 개념이지만 학교교육과정만으로 준비한 학생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또한 제시문(나)는 첫 줄부터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단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관련 개념을 알고 있을 경우 나머지 지문을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제시문 파악이 가능하므로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달려있는 문제1, 2가 모두 위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낭비의 관점' '과학적 관리법' 등을 주된 논제로 묻고 있어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여부가 논술 시험 성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또한 제임스의 <심리학의 원리>도 심리학 개론 수준의 대학전공이론을 미리 선행했을 경우 매우 유리한 제시문이며, 프리드리히 니체의 '즐거운 학문', 임화의 '고전의 세계-혹은 고전주의적인 심정', 사회학자 가브리엘 타르드의 '모방의 법칙', 매튜 살가닉-피터 도즈-던컨 와츠가 <사이언스>에 공동으로 낸 과학논문 등도 언뜻 보기에 대학생들도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어려운 내용이다.
- 그리고 고려대의 경우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 막스 베버의 <정당한 지배의 유형> 등 학생들의 교육과정 속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대학 전공 서적 수준의 제시문을 제시하여 역시 난이도가 매우 높다.
- 기타 다른 대학들의 제시문도 그 출처가 국외인 경우가 다수여서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친숙하게 접하기 어려운 글들이 많아 학생들에게 낯설음과 부담감을 동시에 준다. 이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학생들은 논술대비를 위해 사교육 시장의 문을 더욱 두드리게 되는 것이다.

## 2. 영어 지문 포함 여부

학교명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계	
	인문	사회 1	사회 2	인문 A	인문 B	인문	사회	동아시아	인문	인문 A	인문 B	인문 C	인문 D	인문 1	인문 2	인문 3	인문	사회	인문 1	인문 2	인문 I	인문 II	영어	서양어	중국어	일본어	인문 1	인문 2	상경		
시험명																															총 29개
제시문 수	4	6	5	5	6	10	10	9	3	5	5	5	5	8	8	8	4	4	8	8	7	7	6	6	6	6	3	3	3	총 173개	
영어제시문수	1	1	1	0		0		0	0	1	1	1	1	0		0	0	1	1	0		2	2	2	2	0				총 16개	
계	3			0		0			0	4				0			0		1		0		8				0				

- 제시문 중 영어 지문을 포함한 학교는 총 4곳으로, 한국외대 8개, 서울시립대 4개, 경희대 3개, 이화여대 1개였다.
- 특히 한국외대의 경우 한 시험에 영어 지문을 2개씩 포함하고 있었으며, 영어지문의 분량도 한 제시문 당 경희대 약 440개, 서울시립대 약 430개 단어로 많은 편이었다.
- 시험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영어 독해 속도가 빠르고 정확한 학생이 시험에 더 유리한데, 이것은 학생의 논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애초의 논술 시험 시행 취지에서 벗어나 영어독해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논술시험 제시문에 영어지문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 3. 수학 문제 출제 여부

학교명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계	
	인문	사회 1	사회 2	인문 A	인문 B	인문	사회	동아시아	인문	인문 A	인문 B	인문 C	인문 D	인문 1	인문 2	인문 3	인문	사회	인문 1	인문 2	인문 I	인문 II	영어	서양어	중국어	일본어	인문 1	인문 2	상경		
시험명																															총 29개
제시문 수	4	6	5	5	6	10	10	9	3	5	5	5	5	8	8	8	4	4	8	8	7	7	6	6	6	6	3	3	3	총 173개	
수학제시문수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1	0	0	0	0	0	0	1	총 6개	
계	0			2		0			0	0				0			0		1		2		0				1				

\* 경희대의 경우 수학제시문은 없었으나 논제 중 일부가 수학문제로 출제되었음.

- 제시문이나 논제 중 일부에 수학 문제를 포함한 학교는 5곳으로 경희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였다.
- 특히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의 경우에는 인문계 논술시험에서 수학문제를 출제하였는데 인문계 논술에서 수학 관련 지식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가 의문이다. 또한 전공연계성을 고려할 때 수학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사회계열로 진학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논술시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보자면 인문계열이든 사회계열이든 학생의 인문학적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에서 수학 관련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고려대의 경우 ‘집합과 명제’의 논리표 부분과 ‘행렬’의 3×3 행렬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이 출제되었는데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수리논술’의 형태로 출제된 것이다.
- 그리고 이화여대의 경우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수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푸는 문제였으나, 수능에서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에 사실상 고등학교 수업시간 내에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으므로 사교육을 통한 논술시험 대비수업을 받은 학생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 한양대의 경우 미시경제학의 ‘불확실성하의 선택’ ‘완전보험시장과 부분보험시장’ ‘기댓값’ 등의 개념을 활용한 응용 문제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선행학습을 통해 배운 학생에게는 매우 유리한 시험이 될 것이다. (수학 문제 관련 조언: 수학사교육포럼 부대표 김성수)

#### 4.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의 비율 정도

학교명	시험명	총 논 제 수	평가 요 소 수	사실·추론적 사고능력 평가요소 수(비율)	비판·창조적 사고능력 평가요소 수(비율)
경희대	인문-예체능	3	5	3 (요약, 논지, 주제 제시)	2 (상호텍스트적 해결방향 논술, 문제점 비판)
	사회-오전	3	4	2 (수학문제, 관점제시)	2 (주장평가, 결과평가)
	사회-오후	3	5	4 (수학문제, 요약, 논지, 이유 제시)	1 (해결방안 논술)
	계	9	14	9 (64.3%)	5 (35.7%)
고려대	인문A-오전	3	4	2 (요약, 관점 비교)	2 (수리논술, 자신의 견해 논술)
	인문B-오후	3	3	2 (수학문제, 요약)	1 (상호텍스트적 비교)
	계	6	7	4 (57.1%)	3 (42.9%)
서강대	인문/영미문화/ 커뮤니케이션	2	5	3 (요약, 분류)	2 (작품에 적용, 타당성 평가)
	사회과학/경제	2	3	2 (원인 설명, 관점 분류)	1 (평가)
	동아시아문화/E U문화/경영	2	4	1 (분류)	3 (종합하여 새로운 틀 제시, 타당성 평가, 상호텍스트적 적용)
	계	6	12	6 (50%)	6 (50%)
서울대	인문	8	8	5 (원인 분석, 비교, 의미 기술, 결과 비교)	3 (항상방안 제시, 상상, 예상 반론과 반박 제시)
	계			5 (62.5%)	3 (37.5%)
서울시립대	인문 A	3	6	3 (요약, 원인 설명)	3 (상호텍스트성 비교, 한계 논술, 주장 옹호)
	인문 B	3	상동	상동	상동
	인문 C	3	5	3 (요약, 추이 기술, 이유 설명)	2 (상호텍스트성 비교, 주장 옹호)
	인문 D	3	상동	상동	상동
	계	12	22	12 (54.5%)	10 (45.5%)
성균관대	인문 1	4	6	4 (분류, 요약, 자료분석, 현상 설명)	2 (상호텍스트적 비교, 개선방안 논술)
	인문 2	4	5	3 (분류, 논지서술, 결과 해석)	2 (결정 평가, 취지 평가)
	인문 3	4	7	4 (분류, 요지서술, 그림설명, 관계 설명)	3 (평가, 자신의 견해 논술)
	계	12	18	11 (61.1%)	7 (39.9%)
연세대	인문	2	3	1 (비교)	2 (상호텍스트적 적용, 의견 제시)
	사회	2	3	2 (논지 비교, 결과 해석)	1 (주장평가)
	계	4	6	3 (50%)	3 (50%)
이화여대	인문 1	4	8	6 (요약, 차이점 설명, 관계 설명, 기술, 이유 설명, 비교)	2 (상호텍스트적 비판, 자신의 태도 논술)
	인문 2	4	9	6 (요약, 공통점 설명, 차이점 설명, 수학문제, 자료해석, 문제점 파악)	3 (자신의 견해 제시, 평가, 정책방향제시)
	계	8	17	12 (70.6%)	5 (29.4%)
중앙대	인문 I	3	4	2 (논지 차이점, 수학문제)	2 (문제점 비판, 대안제시)
	인문 II	3	3	2 (논지 차이점, 수학문제)	1 (논지 비판)
	계	6	7	4 (57.1%)	3 (42.9%)
한국외대	영어/동양어	3	5	4 (논제, 요지 서술, 자료분석, 원인분석)	1 (해결방안제시)
	서양어/사범	3	5	3 (논제, 요지 서술, 문제점 제시)	2 (상호텍스트적 비교, 해결방안제시)
	중국어/사회과학	3	6	2 (논제, 요지 서술)	4 (상호텍스트적 비교, 주장 비판, 대안 제시)
	일본어/상경/글 로벌경영	3	5	3 (논제, 요지 서술, 문제점 제시)	2 (상호텍스트적 비교, 분석)
	계	12	21	12 (57.1%)	9 (42.9%)
한양대	인문-오후1	1	4	1 (논지 요약)	3 (평가, 창작, 논술)
	인문-오후2	1	2	1 (비교분석)	1 (논평)
	상경-오전	2	3	2 (이유 설명, 수학문제)	1 (상호텍스트적 해석)
	계	4	9	4 (44.4%)	5 (55.6%)
계	29개	87	141	82개 (58.2%)	59개 (41.8%)

- 각 논제에서 묻고 있는 평가요소들을 세분화하여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조적 사고능력’의 4가지 층위로 분석해보았을 때, 141개의 평가요소 중 ‘사실·추론적 사고능력’(요약, 논지 찾기, 분류 등)을 평가하는 문항은 82개로 58.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판·창조적 사고능력’(상호텍스트적 분석, 타당성 판단, 자신의 생각 논술 등)을 평가하는 문항은 59개로 41.8%의 비중이었다.
- 특히 이화여대의 경우 총 17개의 평가요소 중에서 ‘사실·추론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12개로 70.6%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어, 대부분 요약하기, 공통점과 차이점 설명하기, 자료를 해석하기 등을 묻는 문제였다.
- 채점자의 입장에서 ‘사실·추론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은 채점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여 시험에서의 객관적 변별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논술시험 도입의 취지는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비판·창조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항목보다 ‘사실·추론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60% 가까운 비중으로 논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본래 논술시험 시행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지적될 필요가 있다.

## 5. 제시문과 논제의 수, 답안작성시간과 분량에서의 문제

학교명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계						
시험영역	인문	사회 1	사회 2	인문 A	인문 B	인문	사회	동아시아	인문	인문 A	인문 B	인문 C	인문 D	인문 1	인문 2	인문 3	인문	사회	인문 1	인문 2	인문 I	인문 II	영문	국어	중국어	일본어	인문 1	인문 2	상경	총 29개
제시문 수	4	6	5	5	6	10	10	9	3	5	5	5	5	8	8	8	4	4	8	8	7	7	6	6	6	6	3	3	3	총 173개
논제 수	3	3	3	3	3	2	2	2	8	3	3	3	3	4	4	4	2	2	4	4	3	3	3	3	3	3	1	1	2	총 87개
시간(분)	120			120		120			300분	120				120	120	120	120	120			120									
분량(자)	1400-1700	1300-1600	1300-1600	1000-1100	1000-1100	문제1: 800-1000 문제2: 1300-1500 (총 2100-2500)			2200, 1400±200, 800±200, 1000±200 (총4800~6000자)	2000				미제시			2000	미제시		1060-1100		1800			1400	1400	600	평균 1650~1850자		

- 2012학년도 주요 11개 대학 인문 논술 시험에서 제시한 총 제시문 수는 173개로 한 시험 당 평균 6개이다. 가장 많은 제시문을 제시한 학교는 서강대로 한 시험 당 10개였으며, 가장 적은 제시문을 제시한 학교는 서울대와 한양대로 한 시험 당 3개였다.
- 2012학년도 주요 11개 대학 인문 논술 시험에서 제시한 총 논제 수는 87개로 한 시험 당 평균 3개이다. 가장 많은 논제를 제시한 학교는 서울대로 한 시험 당 8개였으며, 가장 적은 논제를 제시한 학교는 한양대로 한 시험 당 1개였다.
- 답안작성시간은 대부분 대학교의 경우 120분이었으나, 서울대의 경우 이례적으로 300분(5시간)이었다.
- 답안의 분량은 한 시험당 평균 1650~1850자이며, 서울대의 경우 이례적으로 4800~6000자였다. (답안의 분량을 제시하지 않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제외)
- 한정된 시간 안에 국문·영문·수학 제시문, 각종 표와 그래프, 그림 등 최고 10개의 제시문과 최고 8개의 논제를 풀어 내야 하는 수험생의 심리적·육체적 압박감은 상당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창의적인 사고를 찬찬히 펼쳐내는 내실있는 과정중심 시험보다는 평소에 익혀둔 몇 가지의 글의 전개방식·구성방식 속에서 주어진 제시문과 관련된 한정된 사고를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는 것이 관건인 결과중심 속도시험을 치르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본래 논술 시험을 통해 알고자 했던 학생 본연의 고등사고능력보다는 선행학습과 문제풀이 중심의 연습을 통해 얻어진 기술적인 능력에 국한된 학생의 일부분만을 평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서울대의 경우 사법시험 수준의 답안작성시간과 답안 분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학생들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 6. 출처와 해설 공개 여부

학교명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계
출처공개	×	○	○	△	×	×	○	×	×	○	×	5곳 (45.6%)
해설공개	△	○	×	△	×	○	○	×	×	△	×	6곳 (54.5%)

※ 출처: ○ 전체공개, △ 일부공개, × 미공개 / 해설: ○ 충분, △ 미흡, × 미공개

- 논술 시험 당일 문제지에 제시문의 출처를 밝힌 학교는 2곳으로 서강대와 중앙대였다.
- 추후 제시문 출처를 공개한 학교는 3곳으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였다.
- 추후 어떠한 해설도 공개하지 않은 학교는 5곳으로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였다.
- 그러나 해설을 공개한 학교의 경우(6곳: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외대)에도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경희대의 경우 예시답안만 간략하게 나와있어 출처의도나 채점기준 등을 알 수 없었다. 서울대의 경우 논술시험 출제의 기본방향과 출제 의도, 문항 설명 등은 안내되고 있으나 문항에 대한 예시답안이나 채점기준 등은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들 자신이 쓴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한국외대의 경우도 출처의도와 출처에 대한 간단한 해제를 담은 해설을 공개하였으나 제시문의 주제를 간단히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 V. 분석 결과 요약 정리표

2012인문논술시험		제시문				논제				정보제공여부		답안작성	
학교명	시험수	총 제시문 수	교과서 반영제시문 비율(%)	영어지문 포함유무	수학문제 포함유무	총 논제 수	평가요소 수	사실·추론적 사고능력 평가요소비율 (%)	비판·창조적 사고능력 평가요소비율 (%)	출처공개	해설공개	시간 (분)	평균분량(자)
경희대	3	15	13.3	○	△ 논제출제	9	14	64.3	35.7	×	△	120	1333-1633
고려대	2	11	0	×	○	6	7	57.1	42.9	○	○	120	1000-1100
서강대	3	29	10.3	×	×	6	12	50.0	50.0	○	×	120	총 2100- 2500)
서울대	1	3	0	×	×	8	8	62.5	37.5	△	△	300	총 4800-6000자
서울시립대	4	20	0	○	×	12	22	54.5	45.5	×	×	120	2000
성균관대	3	24	0	×	×	12	18	61.1	39.9	×	○	120	미제시
연세대	2	8	0	×	×	4	6	50.0	50.0	○	○	120	2000
이화여대	2	16	0	○	○	8	17	70.6	29.4	×	×	120	미제시
중앙대	2	14	0	×	○	6	7	57.1	42.9	×	×	120	1060-1100
한국외대	4	24	16.7	○	×	12	21	57.1	42.9	○	△	120	1800
한양대	3	9	0	×	○	4	9	44.4	55.6	×	×	120	1133
계	29개	173개	5.2%			87	141	82개 (58.2%)	59개 (41.8%)	5곳 (45.6%)	6곳 (54.5%)		평균 1650-1850자

※ 담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양신영

참고자료 1. 제시문 출처 목록

제시문 출처 목록

고려대	인문계 A	(1) (2)가 (2)나 (3) 보기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법, 입법 그리고 자유> 현대문학 소설 황순원 <인간점목>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행법률을 수형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쓰고 입법의 배경과 존재 의의를 추가 상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독일의 법률에 대한 설명 영제와 조건, 함수, 최대와 최소, 지수, 행렬, 수열
	인문계 B	(1) (2)가나다 (3) 보기	막스 베버 <정당한 지배의 유형> 재구성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최만리 등의 상소문과 이에 대한 세종의 답을 정리하고, 고종 칙령 중 한글 관련 내용을 추출해 낸 것. 한글이 역사적 변화에 따라 정통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설명. 노만 콘 <천년왕국운동사> 재구성 수열, 무한급수, 확률변수, 확률분포, 평균
서강대	인문 / 영미 문화 / 커뮤니케이션	문제1	가 나 다 라 마 이인성 <당신에 대해서> 이성복 <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 한용환 <소설학 사전> 르네 마그리트 <이비지의 배반> 시어도어 드 배리 <중국의 '자유' 전통>
		문제2	가 나 다 라 마 당군의, 모종삼, 서복관, 장군애 <중국문화선언> 다니엘 벨, 함재봉 <현대세계를 위한 유교> 아래스대어 맥킨타이어 <유자를 위한 질문> 김재권 <한국철학 가능한가>
	사회 과학 / 경제	문제1	가 나 다 라 더글러스 호프스태터 <괴델, 에셔, 바흐> 고등학교 <경제> 토마스 셸링 <미시동기와 거시행동> 그래프
		문제2	가 나 다 라 마 바 월 킨리카 <다문화주의 시민권> 스티븐 룩스 <자유주의자와 식인종> 월 킨리카 <다문화주의 시민권> 고등학교 <사회> 스티븐 룩스 <자유주의자와 식인종>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 문화 / EU 문화 / 경영	문제1	가 나 다 라 마 앵거스 그레이엄 <두 중국 철학자들> 제임스 레이첼즈 <도덕철학> 신광래 <맹자와 고대 중국사상> 차드 한센 <고대 중국에서의 언어와 논리> 김영식 <과학, 인문학 그리고 대학>
		문제2	가 나 다 라 수전 블랙모어 <임> 폴 블룸 <데카르트의 이야기> 스티븐 미슨 <마음의 선사학>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울대	인문	문항1	소설 <분노의 포도>
		문항2	알수없음
		문항3	나폴레옹의 일생 약술
연세대	인문	가 나 다 라 나쓰메 소세키 <현대 일본의 개화> 프레드릭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의 원리> 브루너와 포터의 '시각적 인지에 관한 실험'	
	사회	가 나 다 라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움 학문> 임화 <고전의 세계 - 혹은 고전주의적인 심정> 가브리엘 타르드 <모방의 법칙> 매튜 살가닉 외 논문 2006	
한국외대	영어 / 동양어	제시문A	Steven Pinker <The Black Slate>
		제시문B	Wikipedia 2011
		자료1	Ruth Benedict, <Patterns of Culture>
		자료2	허균 <유재론>
	서양어 / 사범	자료3	풍우란 <중국철학간사>
		자료4	김창균, 임계영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제시문A	Garrett Hardin, <The Competitive Exclusion Principle>
		제시문B	The New York Times 2011
중국어 / 사회과학	자료1	Hausman & Leibtag, 르몽드지 2011	
	자료2	김광규, <짧은 손수 운전자에게>	
	자료3	발자크 <고리오 영감>	
	자료4	버락 오바마 연설	
일본어 / 상경 / 글로벌 경영	제시문A	폴 홀바흐 <System of Nature>	
	제시문B	Clifford Geertz, <Interpretation If Culture>	
	자료1	David Samper <Talking Sheng>	
	자료2	채만식 <치숙>	
	자료3	William Shaw <Business Ethics>	
	자료4	Chen Chih-Ping & Chen Shih-Fu 1961	
	자료1	Andrew Wallace-Hadrill <Roman Empire>	
	자료2	고등학교 <사회문화>	
	자료3	LG경제연구원 <동행화의 틀로 본 성공전략> 보고서	
	자료4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기사	

참고자료 2. 종합표

학교명	2012인문논술시험		제시문			논제				정보제공여부		답안작성	
	시험명	총제시문수	교과서반영수(비율)	영어제시문수	수학제시문수	총논제수	평가요소수	사실추론적 사고능력 평가요소 수(비율)	비판·창조적 사고능력 평가요소 수(비율)	출처공개	해설공개	시간(분)	분량(자)
경희대	인문-예체능	4	2	1	-	3	5	3 (요약, 논지, 주제 제시)	2 (상호텍스트적 해결방향 논술, 문제점 비판)	×	△	120	1400-1700
	사회-오전	6	0	1	-	3	4	2 (수학문제, 관점제시)	2 (주장평가, 결과평가)				1300-1600
	사회-오후	5	0	1	-	3	5	4 (수학문제, 요약, 논지, 이유 제시)	1 (해결방안 논술)				1300-1600
	계	15	2 (13.3%)	3	-	9	14	9 (64.3%)	5 (35.7%)				-
고려대	인문A-오전	5	0	-	1	3	4	2 (요약, 관점 비교)	2 (수리논술, 자신의 견해 논술)	○	○	120	1000-1100
	인문B-오후	6	0	-	1	3	3	2 (수학문제, 요약)	1 (상호텍스트적 비교)				1000-1100
	계	11	0 (0%)	-	2	6	7	4 (57.1%)	3 (42.9%)				-
서강대	인문/영미문화/커뮤니케이션	10	0	-	-	2	5	3 (요약, 분류)	2 (작품에 적용, 타당성 평가)	○	×	300	문제1: 800-1000 문제2: 1300-1500 (총 2100-2500)
	사회과학/경제	10	2	-	-	2	3	2 (원인 설명, 관점 분류)	1 (평가)				-
	동아시아문화/EU 문화/경영	9	1	-	-	2	4	1 (분류)	3 (종합하여 새로운 틀 제시, 타당성 평가, 상호텍스트적 적용)				-
	계	29	3 (10.3%)	-	-	6	12	6 (50%)	6 (50%)				-
서울대	인문	3	0	-	-	8	8	5 (원인 분석, 비교, 의미 기술, 결과 비교)	3 (향상방안 제시, 상상, 예상 반론과 반박 제시)	△	△	300	2200, 1400±200, 800±200, 1000±200 (총 4800~6000자)
	계		0 (0%)	-	-			5 (62.5%)	3 (37.5%)				
서울시립대	인문 A	5		1	-	3	6	3 (요약, 원인 설명)	3 (상호텍스트성 비교, 한계 논술, 주장 옹호)	×	×	120	2000
	인문 B	5		1	-	3	상동	상동	상동				
	인문 C	5		1	-	3	5	3 (요약, 추이 기술, 이유 설명)	2 (상호텍스트성 비교, 주장 옹호)				
	인문 D	5		1	-	3	상동	상동	상동				
	계	20	0 (0%)	4	-	12	22	12 (54.5%)	10 (45.5%)				
성균관대	인문 1	8		-	-	4	6	4 (분류, 요약, 자료분석, 현상 설명)	2 (상호텍스트적 비교, 개선방안 논술)	×	○	120	미제시
	인문 2	8		-	-	4	5	3 (분류, 논지서술, 결과 해석)	2 (결정 평가, 취지 평가)				
	인문 3	8		-	-	4	7	4 (분류, 요지서술, 그림설명, 관계 설명)	3 (평가, 자신의 견해 논술)				
	계	24	0 (0%)	-	-	12	18	11 (61.1%)	7 (39.9%)				

연 세 대	인문	4	0	-	-	2	3	1 (비교)	2 (상호텍스트적 적용, 의견 제시)	○	○	120	2000
	사회	4	0	-	-	2	3	2 (논지 비교, 결과 해석)	1 (주장평가)				
	계	8	0 (0%)	-	-	4	6	3 (50%)	3 (50%)				
이 화 여 대	인문 1	8		1	-	4	8	6 (요약, 차이점 설명, 관계 설명, 기술, 이유 설명, 비교)	2 (상호텍스트적 비판, 자신의 태도 논술)	×	×	120	미제시
	인문 2	8		-	1	4	9	6 (요약, 공통점 설명, 차이점 설명, 수학기제, 자료해석, 문제점 파악)	3 (자신의 견해 제시, 평가, 정책방향제시)				
	계	16	0 (0%)	1	1	8	17	12 (70.6%)	5 (29.4%)				
중 앙 대	인문 I	7		-	1	3	4	2 (논지 차이점, 수학기제)	2 (문제점 비판, 대안제시)	×	×	120	1060-1100
	인문 II	7		-	1	3	3	2 (논지 차이점, 수학기제)	1 (논지 비판)				
	계	14	0 (0%)	-	2	6	7	4 (57.1%)	3 (42.9%)				
한 국 외 대	영어/동양어	6	1	2	-	3	5	4 (논제, 요지 서술, 자료분석, 원인분석)	1 (해결방안제시)	○	△	120	1800
	서양어/사범	6	0	2	-	3	5	3 (논제, 요지 서술, 문제점 제시)	2 (상호텍스트적 비교, 해결방안제시)				
	중국어/사회과학	6	1	2	-	3	6	2 (논제, 요지 서술)	4 (상호텍스트적 비교, 주장 비판, 대안 제시)				
	일본어/상경/글로벌경영	6	2	2	-	3	5	3 (논제, 요지 서술, 문제점 제시)	2 (상호텍스트적 비교, 분석)				
	계	24	4 (16.7%)	8	-	12	21	12 (57.1%)	9 (42.9%)				
한 양 대	인문-오후1	3		-	-	1	4	1 (논지 요약)	3 (평가, 창작, 논술)	×	×	120	1400
	인문-오후2	3		-	-	1	2	1 (비교분석)	1 (논평)				1400
	상경-오전	3		-	1	2	3	2 (이유 설명, 수학기제)	1 (상호텍스트적 해석)				600
	계	9	0 (0%)	-	1	4	9	4 (44.4%)	5 (55.6%)				-
2012인문논술시험		제시문				논제				정보제공여부		답안작성	
시험명	총제시문수	교과서반영수(비율)	영 어 수 (비율)	수 학 수 (비율)	총 논 제 수	평 가 요 소 수	사실·추론적 사고능력 평가요소 수 (비율)	비판·창조적 사고능력 평가요소 수 (비율)	출처공개	해설공개	시간(분)	분량(자)	
계	29개	173개	9개 (5.2%)	16 (9.2%)	6 (3.5%)	87	141	82개 (58.2%)	59개 (41.8%)	5곳(45.6%)	6곳(54.5%)	평균 1650~1850자	